정토마을, 적멸보궁 불사 고하다

원만회향 '도량재' 봉행

印마힌다 스님이 전한
佛진신사리 봉안 예정
연면적 1,163㎡ 규모

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는 5월 3일 '간월사 간월보궁 공경전 건립 도량재' 를 5월 3일 법당 건립 부지에서 봉행했다.

울산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에 부처님 진신사리와 삼천불을 봉안 할 법당이 조성된다.

자재요양병원은 불교 호스피스 전문 요양병원으로 죽음을 맞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부처님 품안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다. 그동안 가족들과 환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불공을 올리고자 해도 여법한 법당이 없어 교육원 강당에서 법회와 기도를 이어왔다.

이에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이사장 능행)는 5월 3일 '간월사 간월보궁 공경전' 건립 도량재를 법당 건립 부지에서 봉행했다. 도량재는 불사 시작을 시방세계에 고하는 의식과 함께 불사 원만 회향 기도로 진행됐다.

도량재는 본격적으로 불사를 시작하기 전, 시방세계에 불사 시작을 알리고 원만한 불사 완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도량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이사장 능행 스님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스님들은 2시간 30분 동안 예불의식과 염불로 도량을 청정하게 맑히는 의식을 거행했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정토마을 자재요양 건립 전 부터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부처님이 주는 참된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법당 건립을 기원해왔다. 간절한 발원에 대한 응답처럼 2016년 정토사 관자재회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았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쇼카 왕의 아들 마힌다 스님이 불교 전파를 위해 스리랑카로 이동해 일부를 세루빌라사(寺)에 봉안한 것이다. 스리랑카는 1923년 힌두교 난입으로 폐허가 된 세루빌라사를 복원 할 당시 부처님 진신사리를 발굴하고 검증을 받아 콜롬보 다투말루사로 이운했다. 다투말라사는 2015년 10월 정토마을에 기증하기로 약속하고 시리세나 스리랑카 6대 대통령이 전수해 2016년 3월 21일 정토마을에 봉안됐다.

진신사리와 삼천불이 봉안될 간월사 간월보궁 공경전은 복층 구조로 된 지하 1층과 지상 1층, 총 3층으로 구성되며 연면적 1,163㎡ 규모이다. 지붕은 금으로 장엄된 불사조 형태의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이뤄진다. 완공 예정은 2022년 5월이다. 삼천불은 지하 1층에, 부처님 진신사리는 지상 1층에 봉안될 예정이며 특별히 부처님 진신사리는 누구나 직접 친견할 수 있도록 봉안된다.

정토사 관자재회는 "사리 이운 당시 스리랑카 대통령이 불교문화를 통한 우호 증진을 당부했었다"며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탑 안에 사리가 봉안돼 보기가 힘들다며 스리랑카 불교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접수중인데 사리가 출토 된 세루빌라사 모습을 재현하고 사리탑을 축소해 모델화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방안을 기획중이다"고 덧붙였다.

울산 지장정사, 진신사리 9층 석탑 '우뚝'

4월 3일 법회… 무구정광다라니 등도 봉안

울산 지장정사에 부처님 진신사리와 아난존자 사리를 봉안한 팔각 9층 석탑이 세워졌다.

지장정사(주지 현우)는 4월 30일 극락전 앞에서 팔각 9층 석탑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 봉행된 봉안 법회에는 영선사 정우 스님, 회주 중화 스님, 마힌다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이채익 국회의원, 안수일 시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지장정사 팔각 9층 석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와 아난존자 사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함께 봉안됐다. 진신사리는 스리랑카에서 유학 온 마힌다 스님과의 인연으로 지난해 이운됐으며, 지장정사는 일 년 동안 석탑 봉안식을 위해 〈무구정광다라니경〉을 사경하고 독송 수행해 왔다.

석탑 팔각 9층은 시방삼세를 의미하며 부처님 사리인 진신사리와 무구정광다라니경과 아난존자 사리는 불법승 삼보를 상징한다. 높이는 8m규모이다.

봉안법회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주지스님 인사, 내빈소개,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발원문 및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됐다.

현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재난극복 일환으로 봉안하게 됐다"며 "중생의 삶속에 함께 하는 부처님 사리탑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영도구불교聯, 봉축 오륜탑 불 밝혀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5월 1일 부산 영도구 봉래 교차로 교통섬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장엄등 점등식을 진행했다.

점등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 됐으며 신도들의 참석없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법사 도성 · 정각 스님, 회장 호법 스님, 부회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김희윤 영도구불교연합신도 회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 스님들과 정계 내빈만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안동불교사암聯 봉축 법요식 연기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5월 23일 개최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륜, 봉정사 주지)는 5월 23일 연합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인 4월 30일이 아닌 5월 30일 진행된다. 이에 앞서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행사로 5월 9일 웅부공원에서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번 점등식은 예년과 달리 사암 승려 및 신행 단체장들만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열렸다.

사암연합회는 5월 23일 오후 7시 웅부공원서 안동시, 사암신도회, 각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연합법요식을 개최한다. 법요식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발원문' 이 봉독되며, 예년과 달리 제등 행렬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코로나 인재불사 눈길

연등장학재단 5월 5일 제15회 장학금 전달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법등)은 5월 5일 경북 군위 제2석굴암 비로전에서 제15회 연등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설립 16년을 맞이한 연등장학재단은 이날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대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자리이타의 보살도 정신으로 세상을 이끌어나갈 대들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했다"며 "학생들은 열심히 자기의 소양을 갈고 닦아 미래사회의 동량이 되길 바란다.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길 바란다. 마음이란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니 학생들은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마음껏 그려,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연등장학회 이사장 법등 스님은 2004년 사재 6억원과 임야를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 동안 577명의 학생들에게 총 4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화엄사 각황산 복장낭 불사 회향

주지 덕문 스님 불사 발원
1년간 연구 · 작업 거쳐
전통의식 복원 의미 더해


구례 화엄사는 5월 2일 복장낭 불사를 회향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전통을 되살린 특별한 불사가 회향 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5월 2일 각황전에서 각황산 후불탱화 복장낭 불사회향 법회를 개최했다.

복장낭이란 탱화를 단순한 그림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서 생명력을 갖게 하는 복장물로, 불상에 복장을 하듯이 탱화의 위쪽 중앙이나 양쪽에 주머니를 달고 그 안에 여러 복장물을 넣어 두는 성물이다. 최근 복장낭 의식이 쇠퇴하여 탱화의 점안의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화엄사는 전통의식 복원 차원에서 각황전 후불탱화를 비롯해 각 전각의 탱화의 복장낭 조성을 마쳤다.

예로부터 화엄사는 대웅전과 각황전 등 각 전각마다 불화에 복장낭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소실되고 몇 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남은 복장낭도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법당을 참배해도 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주지 덕문 스님이 복장낭 불사를 발원하며 복장낭 불사도감을 설립했고 화엄사 성보박물관 강선정 학예관을 담당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 불사가 진행됐다.

이날 복장 갖춤과 점안을 마친 화엄사 후불탱화 복장낭은 대웅전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후불탱화와 각황전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 후불탱화 그리고 견성전(탑전) 신중탱화 등 모두 7점으로 침선장 박춘화(대한민국 한복명장 제611호), 자수장 윤정숙(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이수자), 매듭장 안영순(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 매듭장 이수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했다.

회향식은 동국대 전 이사장 자광 스님의 법문과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2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덕문 스님은 "명장을 들이 참여해 자수와 매듭을 넣어, 다른데서 볼 수 없는 복장낭을 만들어 회향을 맞는 것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